

아동호스피스2

- 죽음의 유형과 아동 -

박호란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아 동은 그들이 경험한 죽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한다.

즉 갑작스런 죽음인가, 질병으로 예견된 죽음인가 또는 부모의 죽음인가, 먼 친척 할아버지의 죽음인가에 따라 죽음이 아동에게 주는 의미는 다르다.

사랑하는 부모의 죽음, 형제나 조부모의 죽음, 그리고 친한 친구의 죽음은 아동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유형에 따른 아동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죽음을 경험한 아동을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자 한다.

▶ 부모의 사망 ◀

부모의 사망은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에 비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부모를 잃은 아동은 자신을 보살펴주고 사랑해 줄 사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 매우 불안정하며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아동은 그의 부모가 사망했다는 최종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에 아동은 감정을 단계적으로 누그러트리기 위해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감정의 방어 기능은 부모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아동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의 아동은 울지 않으며, 어떤 아동은 웃기 시작하며 많은 아동은 즉각적으

로 매우 직선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제가 아빠 침대를 써도 되나요?” “아빠의 회색 잠바를 가져도 되죠?” “장례식에 참석해도 되나요?” 등과 같은 질문으로 표현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난 사건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며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다가오게끔 하는 것이다. 격한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으로서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의식의 인식 범위 밖으로 장시간 동안 내밀 치며 평소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이런 격한 감정들은 오히려 영화를 볼 때나 책을 읽을 때, 또는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와 같은 대치 상황(displaced feelings)에 직면했을 경우에 나타나곤 한다. 그럴 경우 대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격하게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아동은 그들의 감정을 부모와의 죽음과는 격리된 상황 속에서 표출할 수 있다.

죽어버린 사람과 자신을 연계시키기 위해 아동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발현하기도 한다. 아동은 그의 경험을 심적으로 또는 연극을 통해 재생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 행복한 결말을 내릴 수도 있다. 환상이나 다시 만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며,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와 다시 만나기 위해 죽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을 하기도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은 아동이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장애가 발생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과 자살에 있어서 그 발생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확률은 부모의 사망이

갑작스럽거나, 아동이 장남이거나 장녀일 경우 또는 대신 보살피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를 오래전에 잃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에 대한 보살핌에 관심을 쏟는 시기가 아니었으므로, 부모의 사망 후에 보살핌을 잘 받은 아동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부모 사망후 몇 년 동안 아동을 관찰해 온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망을 경험한 아동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더 높다고 한다.

Black과 Urbanowicz(1987)에 따르면 부모를 잃은 아동중 50%는 일년 후에 가벼운 심리적 증상에 시달렸으며, 이 비율은 이년 후에는 37%로 떨어졌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자에 대한 생각이 어른에 비해 아동에게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랫동안 머리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Kaffman(1979)과 Elizur(1983)은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아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성적인 슬픔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6개월, 18개월, 그리고 42개월 사이에 무려 40%나 되는 아동이 병적인 슬픔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병적인 슬픔은 울음, 처한 상황에 대한 부정, 비애나 그리움등의 감정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한다거나 의지함으로써 문제를 야기 시키거나, 반사회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Adam 등(1982)은 부모 중 한 쪽을 16세 이전에 여윈 아동의 반 이상이 심한 자살충동을 느낀바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0%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 또한 부모를 잃은 아동은 이후에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남은 한 쪽의 부모나 보호자가 적절하고 안정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

의 요구를 맞추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호에서 이미 설명하였듯이 태어난 후 일년 동안 아동은 심리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아동은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잃게 되고 곧 이에 반응하게 된다.

정규 교육을 받기 이전의 아동은 공활한 상상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책감과 죄책감에 쉽게 상처를 받도록 한다.

죽은 사람을 이상화시키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노여움을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몇몇 아동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오직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아동은 그들을 저버린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노여움을 제대로 표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동은 이런 그들의 감정을 주위 환경을 향하여 발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응은 남아 있는 부모나, 새로운 부모에게 아동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

부모 중에 한쪽이 사망함에 따라 성장기나 청년기에 놓여있는 아동은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의 역할과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아동중 상당수는 어린 동생들에 있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주체가 된다. 이런 역할은 순전히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부모로서의 역할로 너무 국한되지만 앓는다면 아동의 성장과 성숙을 자극시킬 수도 있다. 보호자 또는 부모의 대체 역할로서 너무 큰 부담이 따르면 아동이 자신의 슬픔이나 자신의 어린 시절 동안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추억들을 상실하여 적합하지 않은 성장의 기로를 걷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아동에게 어른의 역할로서 성숙감과 독립심 그리고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부모와 아동이 서로 돕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중시

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의 사망원인이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아동은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부모가 잔인하게 사망하게 된 후 어린아동은 정신적인 충격의 범위 안에서 놀이를 하기도 한다. 즉 부모 중에 한 명이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손을 빨갱게 칠한다던가 자신이 자신의 가슴을 붓으로 찌르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조금 더 성장한 아동의 경우는 남아 있는 부모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지를 궁리하기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아동은 부모가 사망한 뒤 주위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들은 종종 자라서 의사나 간호사, 또는 경관이 되고

싫어하기도 한다. 이것은 아동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와 함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쟁 지역의 피해자들과 폭력에 의해 희생된 부모들을 목격한 아동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널리 편재해 있다고 벌써 보고된 바 있다. (Dyregrov et al. 1987, Pynoos & Eth 1985).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뒤에 따르는 비판, 그리움 그리고 고통은 특히 그 감정의 깊이가 깊으며, 크리스마스나 설날 이외에도 사망한 사람의 생일이나 사망날짜와 같은 기념일 때에 되돌아오는 수도 있다. 이렇게 기념일과 관련된 감정을 처리할 때에는 종교적 의식을 빌리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기념일과 관련하여 그들의 순수한 감정을 표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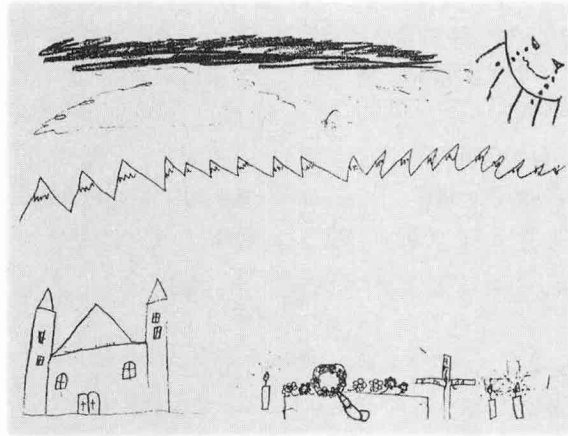
▶ 형제나 자매의 죽음 ◀

형제나 자매의 죽음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부모가 사망했을 때와 비슷하나 그 심도나 지속성이나 장기적인 영향력은 보다 적은 편이다.

아동의 죽음은, 한 가정의 분위기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 남겨진 형제나 자매는 경쟁자이자 놀이 친구를 상실하는 경험을 맛보게 되며, 또한 일시적

으로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 밖에 머물게 된다.

아동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격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곧 '다른 자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부모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전에 비하여 생활력을 잃은 부모



죽음을 경험한 아동의 그림

와 그들의 격렬한 비애는 남은 아동의 활동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게 한다.

부모들은 남은 자녀와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남은 자녀와 거리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특히 아이가 사춘기라면 이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로 힘든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이같은 불행한 결과에 대해 미리 상담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죽음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 부모의 불안감 증대로 인해 아동을 과잉보호하게 되고 아동의 잠정적인 발달과 독립에 방해를 준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녀의 자리를 채우도록 강요하기도

하며 이는 남은 아동의 주체성 확립에 장애를 가져온다.

아동이 태어난 순서와 아동이 그 가정에서 갖는 위치가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어린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경우 남은 아동은 예전의 형제, 자매가 없었으면 하는 지난날의 생각에 비추어 죄책감이 강하게 들 수 있으며, 위의 형제나 자매를 잃은 아동의 경우 그 아동은 죽은 형제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릴 수 있다.

한 아동이 죽은 뒤에는 남은 아동을 과보호하거나 죽은 아동의 성격과 역할을 떠맡도록 압력이 가해 질 소지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부모들은 남은 아동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며 더욱 더 가까운 가족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 아동의 죽음은 가족 내에서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며, 부모가 서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과정의 차이로 인해 둘 사이에 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의 죽음이 부부의 이혼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뚜렷한 의견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부사이의 긴장감을 증가시키는 것만은 확실하다(Dyregrov & Matthiesen 1987a).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제, 자매가 죽음을 당할 때 그 현장에 있거나, 또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놀이를 함께 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남겨진 아동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신을 탓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은 아동을 탓 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는 일어난 사건을 부모가 아동과 함께 개방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자신의 아동이 관련되어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오며 그 피해를 배가시키며 아동의 감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이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는 종종 상극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남은 아동은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져 드는 경우가 있다. 강한 질투심이나 형제(자매)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형제나 자매의 죽음 후 비애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동이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아픈 아동은 자신의 현 상황이나 두려운 미래로 인해 발생하는 노여움을 형제나 자매를 향해 발산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때로는 건강한 아동은 병든 형제나 자매가 죽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병든 형제나 자매가 정말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자책감과 죄책감, 부끄러움이 불어날 것이다. 만일 죽음이 갑작스런 것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싸웠던 기억이나 좋지 않았던 일들도 이런 감정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죽어야 할 사람은 형이 아니라 나였어. 형은 모든 면에서 나았어.’라고 생각하는 일명 ‘생존자의 죄책감(survivor guilt)’이라는 것을 남은 형제나 자매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다.

때때로 이런 반응은 자신도 죽은 형제나 자매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동의 감정 형성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은 아동의 나이, 성숙의 정도 그리고 성인들의 처리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아동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지는 고통은 형제나 자매보다 부모들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 때로 남은 아동이 슬퍼하는 기간이 짧거나 슬픔을 부모 앞에서 내보이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은 아동을 책망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다행히도 이를 직접적으로 아동 앞에서 이야기 하는 부모는 그리 흔하지 않지만, 형제나 자매의 불충분한 감정의 발산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상하고 부적절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동에 있어서는 그리 잘못된 반응이 아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동이 죽었을 때, 그 형제나 자매는 종종 죽은 아동의 친구들의 질문 공세를 받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정보의 공급원으로 여기어 지는 것으로 느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형제나 자매가 아파서 병상에 있거나 죽은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때로 아동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학교를 멀리 하게끔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한 아동의 죽음은 어른뿐 아니라 아동들의 가치관에 큰 변화를 준다. 한 아동이 죽는다는 것은 인생의 잘못된 기로이며, 다른 아동들이 생존해 있는 현실에 대해 불안한 마음-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다-을 품게 한다. 아동의 죽음은 매우 자연스럽게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상을 떠야 할 사람은 늙고 병든 자들이지 인생이 한창 남아 있는 어린 아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들이 증폭된 두려움과 긴장감과 더불어 자신이 같은 질병으로 죽는 생각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부모들은 남은 아이가 아플 때면 걱정을 하지만, 또한 아동 자신도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형제나 자매는 새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가정들을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변화와 새로운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주위 어른들이 얼마나 귀기울여 주는가에 따라 많은 도움과 영향을 준다.

▶ 조부모의 죽음 ◀

아동은 흔히 그의 조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부모의 죽음은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아동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슬픔이나 그리움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의 슬픔은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었을 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나이 드신 어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이 형성한 죽음의 개념, 즉 긴 여생 뒤에 오는 죽음이라는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에 조부모의 죽음은 아동으로서는 한 층 이해하기가 쉽다. 조부모의 죽음은 어린 아동이 죽었을 경우에 비하여 아동이 내린 죽음에 대한 가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죽음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부모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동은 보통 자신의 존재에 대한 굳은 원칙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일상적인 요구들은 부모들이 챙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으며, 또는 어른들의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이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낳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다른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다.

같은 가정에서 생활을 했다거나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갔을 때 보살펴 줬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동이 조부모와 자주 만났었다면 그 반응이 더욱 강할 수 있다.

▶ 친구의 죽음 ◀

아동이 어린 시절을 지내는 동안에 있어서 친구라는 존재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된다. 사춘기에는 어떻게 보면 친구가 부모보다도 중요할 때가 있다. 친구와의 관계는 감정적일 수도 있으며, 평생 이어지는 우정의 관계 또한 많이 형성된다. 친구와의 강한 감정은 사춘기 아동을 한테로 묶는 강한 끈이며, 때로는 극적인 이별과 재결합이 동반되기도 한다.

우리는 친한 친구나 이성친구의 죽음이 아동에

게 어떠한 의미로 비추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친구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반응들이 발생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슬픔을 어른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아동은 충분히 갖지 못한다. 어린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 같아 어른들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피하게 된다. 하지만 아동이 진정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친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 진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은 아동이 누구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은 곧 잊혀진다. 조금 더 큰 아동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 아동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가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 슬픔은 매우 외로운 것이 될 것이다. 사춘기 아동에게 이러한 상황은 친구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하거나 죽은 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생존자의 죄책감'을 들 수 있다.

좀 더 성장한 아동은 친구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나라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했을

까?', '친구가 죽을 때 어땠을까?', '많이 아팠을까?' 하며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된다.

언 호수에서 놀다가 또는 '금지된' 놀이에 참여하다가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에 죽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동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부모들은 똑같은 일이 자신의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 사건-친구의 죽음-을 이용하여 겁을 줌으로써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죽음이 나쁜 짓을 한 결과로서 비춰진다면 이는 아동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아동의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주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일 것이다.

사춘기 아동은 이성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성친구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어른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며, 따라서 죄책감으로 이성친구의 죽음을 묻어두는 경우가 많다. 강한 그리움이나 '나쁜 짓'의 결과로 인식되는 죽음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어른들로서는 이성친구나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아동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